



코스피	2363.77 (0.00)	코스닥	842.60 (0.00)
금리 (국고채 3년)	2.28 (+0.01)	환율 (원/달러)	1092.10 (+4.20) (9일)



[뉴스]
목탁 대신 찬송가?
‘불교사학’ 동국대에
무슨 일이?

03



승자의 세리머니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임효준이 11일 오후 강원도 평창 올림픽 메달플라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깨물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 中 中企여신 경고등 대출 순증액 5조 → 40조

(2012년) (최근 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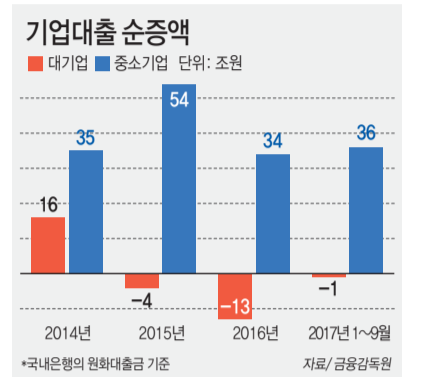
산은 경제연구소
“리스크관리 강화해야”

최근 은행권이 중소기업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가운데 부실위험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11일 KDB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중소기업대출 증가와 부실 리스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순증액은 지난 2012년 4조9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3년~2017년 9월 중에는 연평균 39조 8000억원 수준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대기업 대출은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이슈가 대두되면서 2015년 -4조1000억원, 2016년 -13조1000억원, 2017년 1~9월 -1조1000억원의 순상한 기조가 이어졌다.

이시은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연구원은 “국내은행은 2013년부터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공급해 왔다”며 “중소기업의 대출수요가 늘어난 것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으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태도가 대기업 대비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대부분의 은행들은 올해도 중기 대출부문의 영업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포용적·생산적 금융정책으로 담보·보증 대출보다는 기술력 등 잠재력을 평가해 대출을 늘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은행 간 중기 대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만큼 부실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원은 “과거 중소기업 대출과 부실채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난 후 4분기 째에 중소기업여신 부실채권(NPL)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며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가 2015년 6월 말 이후 추세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소기업여신 부실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기 변동이나 국내 경기가 얼어 붙을 경우 중소기업 대출 부문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 연구원은 “은행 전반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부실위험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부실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기술력이 우수한 혁신기업이 금융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저 불빛 뭐야” 밤 하늘 수놓은 1218대 드론 등 ‘평창드라마’ 숨은 주역은 ICT

개막식 ‘드론 퍼포먼스’ 호평
 최다 동시비행 기네스북 등재
 5G·AI·VR 등 첨단기술 활용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 선보여

1218개의 드론이 하늘 위에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 마크를 수놓는 등 최첨단 기술이 집합한 ‘ICT 올림픽’에 전세계가 극찬하고 있다. (관련기사 2·1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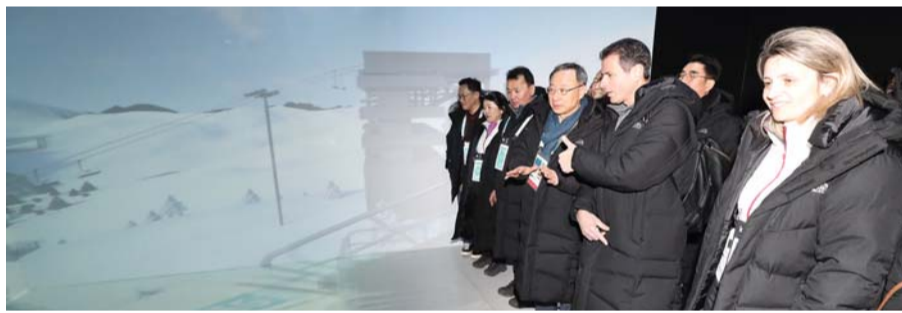
지난 9일 평창 올림픽 플라자 내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 선언, 축하 공연 등에 이어 드론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특히 1218대가 하늘을 난 드론 퍼포먼스는 전세계 최다 드론 공중 동시비행 기록을 세워 2016년 독일의 500대 드론 비행을 크게 뛰어넘으며 곧 기네스북에 등재될 예정이다. 이 같은 퍼포먼스에 대해 미국 주간지 타임은 “수천 개의 드론이 오륜기로 변신해 전 세계의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인상적이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드론이 평창 개회식의 명장면을 만들어냈다”고 평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에 따르면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에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비롯해 편리한 사물인터넷(IoT), 초고화질(UHD),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서비스 등 우리의 최첨단 과학기술이 선보일 예정이다.

조직위에 따르면 정지 상태에서 다양한 각도의 화면을 제공하는 타임슬라이스, 실제 선수의 시점에서 경기 영상을 제공하는 싱크뷰, 중계 화면에서 특정 시점·위치를 골라볼 수 있는 옴니포인트뷰 등 5G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가 제공된다. ‘GO 평창’ 등 스마트폰 용 모바일 가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모바일로 올림픽을 즐길 수 있다.

이밖에 ‘스마트밴드’는 정밀 측위, NFC 센서를 적용한 앱 연동 웨어러블 기기로 ‘위치’ 및 ‘상황인식’ 기반의 사물인터넷



KT 황창규 회장과 마츠 그란리드 GSMA 사무총장을 비롯한 글로벌 ICT 리더들이 10일 강원도 평창 올림픽파크에 위치한 KT 5G 홍보관 ‘5G 커넥티드(5G, connected.)’를 찾아 5G의 미래로 빠지는 듯한 영상서비스를 체험하고 있다. /KT

넷(IoT) 편의 서비스 및 올림픽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키오스크(Kiosk)를 통해서 경기장과 비경기장에서 마스코트 다국어 안내, 응원 투게터, 손글씨 응원하기, 포토투어, 나도 국가대표, 마스코트 따라 하기 등을 관람객이 체험하며 즐길 수 있다.

평창 ICT 체험관에서는 봅슬레이나 스노보드 등 동계스포츠 종목용 VR 시뮬레이터로 구현해 일반인들도 올림픽 종목을 가상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올림픽 현장 곳곳에 11종, 85대의 로봇도 투입되고 한국어, 영어로 된 간단한 질문에 응답하는 인공지능(AI) 콜센터도 구축됐다.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평창을 찾은 글로벌 ICT리더들은 5G 네트워크 기술이 적용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과 쇼트트랙 경기 등 주요 올림픽 이벤트를 관람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KT는 마츠 그란리드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사무총장, 요시자와 카즈히로 NTT도코모 사장 등 다수의 ICT 리더들이 강원도 평창 올림픽파크에 위치한 K

T 홍보관 ‘5G 커넥티드’에 방문했다 설명했다.

5G 커넥티드에 대해 글로벌 ICT리더들은 “5G 네트워크 기반으로 변화하게 될 도시의 청사진을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표현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특히 글로벌 ICT 리더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5G 네트워크 기반으로 진행된 ‘평화의 비둘기’ 퍼포먼스에 대해 극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연자들의 LED 촛불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제어해야 하는만큼 KT는 초저지연, 초연결이 가능한 5G를 활용해 이를 제어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앱)과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KT는 공연에 쓰인 성화봉 모양의 LED 랜턴도 제공했다.

이와함께 쇼트트랙 경기에 100여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촬영하고 이 영상이 5G 단말로 실시간 전달되는 ‘타임 슬라이스’ 중계 기술이 적용된 것과 관련, KT가 5G 기술로 올림픽 경험 방식을 바꿨다고 글로벌 ICT 리더들은 평가하기도 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포항에 또 지진

규모 4.6... 시민들 긴급 대피
 전국 곳곳 지진 공포 휩싸여

11일 일요일 새벽 포항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전국이 또 다시 지진 공포에 휩싸였다. 전국 곳곳에서 흔들림이 감지됐고 일부 지역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인근 울산과 부산 지역은 물론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진동이 느껴져 잠에서 깬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전국에서는 지진 진동을 느꼈다는 시민들의 지진 감지 신고가 14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3면)

다행히도 포스코 등 포항에 있는 주요 산업시설을 비롯, 수도권 지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생산라인들은 피해가 전혀 없이 정상 가동됐다. 기상청은 11일 오전 5시 3분 3초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4.0대 여진이 약 석 달 만이다. 진앙은 북위 36.08도, 동경 129.3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km다.

◆포항은 곳곳 대피
 많은 포항시민이 일요일 새벽 지진이 발생하자 놀라 긴급 대피했다.

지진이 난 직후 많은 포항시민은 집 밖으로 나와 운동장, 공터 등으로 대



피했다. 또 차를 타고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불안감을 안고 차 안에서 기다리는 주민이 많았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주민 이모(45)씨는 “자다가 갑자기 랑 소리가 났고 아파트가 흔들렸다”며 “이번에는 물건도 많이 떨어져 지난해 11월 15일 지진보다 더 규모가 큰 줄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3개월째 대피생활을 하는 포항 흥해실내체육관의 이재민 300여명도 놀라 밖으로 대피했다. 한 주민은 “10여초간 진동이 이어졌고 랑 소리가 나서 자다가 놀라서 나왔다”고 전했다.

경북 포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지진으로 지금까지 22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범중 기자 joker@